

지역 미술 키우고 세계 예술 품어 '문화불모지' 오명 벗다

관주시립미술관 개관 25주년 기획

공립 미술관의 길을 묻다 <5> 부산시립미술관

산업 관문 부산, 영화계 등 통해 문화도시 부각
1998년 미술관 개관 후 문화향유 기회 제공

이중섭·이우환 등 지역 작가 스토리텔링
해외 작가에 전시실 제공·스페인 등 교류전
신진작가·작고작가전·기획사 블록버스터전
어린이 미술관 운영...미술인구 저변 확대 기여
내년 개관 현대미술관과 차별화 과제 남아



부산 출신 이우환 작가의 국내 첫 전시관 '이우환 공간'.



아이들에게 미술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는 어린이미술관.

관주시립미술관보다 6년 늦게 문을 연 부산시립미술관(관장 김영순·1998년 개관)은 '국내 제1항구 도시' 부산과 마찬가지로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역 유일 공립미술관으로서 부산 미술의 진흥이 주요 임무지만 국내, 세계 미술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달 방문한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내년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개관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신진 작가 지원 전시를 한눈에 보여주는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1999-2017' 전(7월28일~12월10일)이 열리고 있었다.

고원석 학예연구실장은 "개관 20주년 기념전은 1876년 개항 때부터 현재까지의 부산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부산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개방적인 곳이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대표적 물류항구였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전국에서 피란민들이 몰리며 다양한 문화들이 섞인다. 산업기 시절에도 물류항구로서 한국 산업의 관문 역할을 하며 국내외 문화들이 유입된 곳이다.

이런 지정학적 특성은 고스란히 부산시립미술관 운영에도 영향을 준다.

고 실장은 부산시립미술관 운영 방침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지역(부산)미술의 진흥 ▲한국미술의 수용 ▲글로벌 아트의 수용이다. 전시 기획부터 소장품 수집까지 이 세 가지 방침을 따른다는 설명이다.

부산은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 분야 발전이 더뎠다. 시립미술관도 그동안 전시 기능만 치중했다. 지난 1996년부터 개조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크게 성공하고 매년 광안리 해수욕장 열리는 '부산꽃축제'가 전국적 인기를 얻으며 문화도시로서의 부산이 부각된 시기는 비교적 최근이다.

개방적 지역색과 문화 발전은 부산시립미술관이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해외 작가들을 위해 전시실을 통째로 내어주고 베트남, 스페인, 아랍 등 해외 교류전도 활발하게 하면서도 신진작가 지원전과 작고작가전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립미술관 장점은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지역 특수성, 연고 작가들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열린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이다. 이 전시는 관람객 9만5000여명이 방문하며 부산에서 열린 국내 작가 개인전으로서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부산과 이중섭과의 인연은 길지 않다. 한국 전쟁 시기 이중섭은 1951년 12월부터 1953년



'관계항-안과 밖' 등 이우환 작가의 조각 작품이 관람객들을 맞는 부산시립미술관 조각공원.

3월까지 가족과 이별하고 부산에서 피란생활을 했다. 이 기간 힘겹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이중섭은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은지화(담뱃갑 속 은빛종이 그린 그림)에 담았고 각종 전시회에서 선보이며 외로움을 예술로 승화시킨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은지화, 편지화를 비롯해 당시 이중섭의 사진, 부산에서 제작한 작품 등을 발굴·전시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

1936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이우환 작가는 중학교 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인연이 있어 부산시립미술관과 함께 '이우환 공간'을 만들었다.

지난 2015년 개관한 '이우환 공간'은 일본 나오시마에 이은 두번째 이우환 개인미술관으로, 이우환 작가가 직접 작품을 위해 만든 공간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김정 바탕에 전면 통유리를 설치한 직육면체 건물(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1400㎡ 규모)은 이우환 작품을 보듯 절제와 긴장감이 느껴지는 하나의 작품이다. 건물에는 흔한 표지석이나 현판 조차 없고 '미술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공간 기본 설계부터 건물 높이와 공간 구성, 작품 배치를 비롯해 마감재, 조명, 집기에 이르기까지 이 작가의 꼼꼼한 손길이 닿아있다.

홍보자료를 만들 때 미술관 관계자들이 작품 일부분만 사진으로 찍자 이 작가가 "작품 전체를 찍어 각 개체들이 주는 긴장감을 담아야 한다"고 꾸짖었다는 일화도 있다.

1층에는 자연석과 철관으로 만든 '관계항-



작품 기증자들을 소개하는 공간.

좁은문', '물(物)과 언어' 등 작품 8점이, 2층에는 회화작품 '선으로부터', '점으로부터', '바람과 함께' 등 비교적 신작 위주 작품 13점이 걸려 있다. 또한 앞마당에는 '관계항-안과 밖', '관계항-길 모퉁이' 등을 설치해 공간을 완성했다.

이진철 학예관은 이우환 공간에 대해 "부산시립미술관의 또다른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앤디 워홀 라이브'(2016), '스튜디오 지브리 입체건축전'(2015) 등 전시기획사들이 주관하는 블록버스터 전시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기획사들 배만 불러준다'는 블록버스터 전시에 대한 우려를 깨기 위해 공동 개최 전시도 2개월에 6000만원 수준인 대관료를 받아 미술관 운영 내실을 다지고 있다.

미술관 지하 1층에 있는 어린이미술관은 공립미술관이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교육' 방침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오는 12월3일까지 'Studio1750'팀(손진희·김영현), 구민정, 오유경 작가가 참여하는 '빛, 우르르, 쉬익'을 진행한다. 질서나 규정,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을 미술로 풀어낸 전시로, 그리고 만지는 체험으로 구성된다. 어릴 적부터 미술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며 어른이 되어서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

부산시립미술관은 다른 공립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에듀케이터 1명이 있으며 기록연구사(아카이비스트) 1명도 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장기 계획으로 정식 공간 디자이너, 홍보·출판 디자이너 등도 채용할 방침이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부산시는 시립미술관 이외에 부산현대미술관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준공한 부산현대미술관은 각종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곳으로 특히 부산비엔날레 전용관 성격이 강하다. 지난해까지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진행했던 비엔날레 전시는 앞으로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역적으로 동부산(해운대구 우동)에 시립미술관이 있다면 서부산(사하구 을숙도)에는 현대미술관이 자리잡는 것이다. 미술관이 많을수록 문화 저변에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립미술관 입장에서는 차별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부산=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